“부처님께 옷 입혀요”…체험 ‘인기’

日, 나라국립박물관 워크숍 화제

매년 가을 개최 쇼소인 특별전서

불상에 옷 · 가사 등 입히는 체험

학예사 도움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벌거벗은 모습의 불상에 옷과 가사를 입히는 체험 워크숍이 화제다. 지난 10월 22일 일본의 ‘엘터 뉴스’는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특별 워크숍에 대해서 보도했다.

일본 4대 국립박물관 중 하나로, 특히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나라국립박물관. 특히 매년 가을에 열리는 쇼소인(正倉院) 특별전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나라국립박물관은 정기적으로 체험형의 워크숍을 개최해 방문객들이 소장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매달 2주차와 4주차 일요일에 열리는 특별 워크숍은 나라국립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체험형 워크숍으로 동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지하회랑의 광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2주차 일요일 오전 10시반부터는 정기 체험형 워크숍, ‘부처님께 옷을 입히자!’가 개최된다. 이 워크숍에선 벌거벗은 나신의 불상에 옷을 입혀보는 체험이 진행된다.



불상에 의복을 입히는 워크숍 참가자. 사진출처=엘터뉴스

나라국립박물관 측은 “나신의 모습으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가마쿠라시대 이후 자주 보이는 양식”이라며 “불상을 단순한 조각상이 아닌, 실제 살아 있는 불보살로 생각하는 생신불(生身佛)사상이 유행하면서 불상에 실제로 의복을 입히고 예경하는 풍습이 유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물관이 소재한 나라시에도 렌죠지(蓮城寺)의 ‘나신 아미타여래입상’이나 덴코지(傳香寺)의 ‘나신 지장보살입상’ 등이 전해져 정기적으로 의복을 새로 입히는 법요가 봉행되고 있다.

워크숍에 이용되는 불상은 2022년, 실제 박물관에 소장 중인 ‘나형 아미타여래입상’을 모델로 해, 작은 크기로 복제한 것이다. 당시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연령을 불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기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나형의 불상에 크게 3종류의 옷을 학예사들의 도움과 설명을 들어가며 직접 불상에 입히는 것으로 진행된다. 먼저 불상의 하반신에 청색의 치마인 군(裙)을 두른 후, 어깨를 덮는 녹색의 부견의(覆肩衣), 마지막으로 붉은색의 가사를 입히는 것으로 불상의 장엄이 완성된다.

박물관 측은 “많은 분들이 ‘불상에 의복을 입히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라던지, ‘어떻게 입혀야 할지 모르겠다’ 며 손사레를 치시는 방문객도 계신다”면서 “하지만 학예사와 스태프들이 함께 하며 알려주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나형의 불상만으로도 드문데 의복을 입힐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체험할 수 없기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길 바란다”며 워크숍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印, 달리트 ‘불평등’ 이유로 400명 불교 귀의

구자라트 주 각지서 개종 법회

“불교의 평등 · 자비사상 감명”



아마다바드 개종 법회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 사진출처=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아마다바드에서 달리트 400명이 불교로 개종해 화제다.

10월 25일 인도 매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아마다바드에서 달리트의 집단 불교 개종 소식을 전했다.

지난 10월 24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아마다바드에서 두세라(दशहरा, 라마 신이 악마 라바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맞아 개종 법회가 열렸다. 올해 14회를 맞은 개종 법회는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가 주최했으며 법회에는 구자라트 주 전역에서 약 400명의 힌두교도가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은 달리트 공동체 출신으로 카스트 제도의 차별을 피해 개종을 선택했다.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프라빈바이 파르마르(38)은 “2013년부터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와 인연이 있었었지만 이제야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불교로 개종했다. 인도 도처에는 차별이 있다. 달리트를 향한 흉악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종을 결심했다. 불교는 힌두교와 달리 평등과 자비가 있다”고 밝혔다.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의 라메시 반카르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달 구자라트 주 행정센터에 개종 신청서를 제출한 418명 중 90%가 불교를 택했다. 라메시 사무국장은 “인도는 공식적으로 카스트 차별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카스트에 기반한 편견과 범죄가 만연하다”면서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카스트제도의 최 하층민, 달리트가 대부분 불교로 개종한다. 뿌리 깊은 차별과 멸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불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파르마르의 견해에 동의했다.

간디나가르의 란데자 출신인 아쉬위니 쿠마르 솔란키(22)의 가족도 불교에 귀의했다. 그는 “69세, 70세의 부모님도 오늘 개종 법회에 참석해 함께 불자가 됐다”면서 “아버지께서는 2004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왔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불교 교리를 말씀하시며 가족 모두가 불교에 귀의해야 한다고 설득하셨다”고 말했다.

가족이 함께 불자가 된 솔란키의 사연과 반대로 홀로 개종한 R K 자다브(71)는 “우리 가족도 불교를 접하긴 했지만 아직 개종 의사는 없다”면서 “내가 먼저 개종하면 가족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선불교 통한 일대일로 발전 도모

〈一帶一路〉

10월 19~20일, 다훙산 포럼

20개국 500명 사부대중 참석

중국정부의 주요한 대외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프트 파워 사업에서 중국불교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중국불교의 중요한 핵심인 선불교의 가르침과 문화를 중심으로 두는 일대일로 사업의 불교정책은 중국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 ‘인민망’ 등은 지난 10월 27일, 츠언사(慈恩寺)에서 개최된 국제 선불교 문화 포럼인 ‘다훙산 포럼’의 내용을 보도했다.

걸쳐 후베이성 쑤이저우시에 소재한 다훙산(大洪山) 츠언스는 송나라 때부터 이어오는 고찰로 특히 선종에서는 조동종과 깊은 인연이 있는 선찰이다.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국제포럼인 ‘다훙산 포럼: 중국 선문화의 해외확산과 영향’에는 20개국에서 500명의 출재가자가 모여 진행됐다.



다훙산 포럼에 참석한 각국 불교대표들. 사진출처=중국불교협회

포럼을 주관한 츠언스의 주지이자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인 인쉰 스님은 “일대일로를 통한 선불교문화의 발전과 확산은 국가와 지역 간 인적연결을 촉진하고, 불교의 지혜를 진작하기 위한 중국불교계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포럼이 열리게 된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불교 일대일로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해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포럼 개막사를 맡은 중국인민정협의 치쉬춘 부주석은 “다훙산 포럼은 중국 선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다훙산에서 일어난 선 문화의 그 국제적 명성과 영향력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중국선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현재 중국불교계의 다양한 문화 · 교육사업은 일대일로의 경로에 있는 불교국가인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 몽골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국제적인 사업의 중간 점검을 위해 최근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대응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에 만든 불교 국제기구인 남중국해 불교원탁회의의 개최권을 이양하는 행사도 열렸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중국에서 개최되다가 지난해 최초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됐으며, 오는 12월엔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포럼이 실제 불교 문화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국의 관제 선전을 위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를 주로 다루는 ‘비터윈터’는 “포럼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 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된 것은 다분히 중국의 하드 파워과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태국계 사찰 절도 피해…인명 피해 없어

감시 카메라까지 가져가 수사 난항

보안 강화 및 범죄 예방 기금 모연



강도 피해로 엉망이 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왓 라오 사원

지난 10월 25일 미국 필라델피아 텔레비전 방송국 ‘6ABC’는 필라델피아 내 태국불교 사원 절도 피해 소식을 전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왓 라오 불교사원에 강도가 침입해 수천 달러의 보시금과 귀중품 절도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사원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 당시 불자의 장례식을 위해 스님 및 사찰 관계자 모두 외출 중이었다.

피해 사원의 피아쿠 라 스님은 “장례식을 마치고 사원에 돌아왔더니 법당과 요사채 모두 아수라장이었다. 불전함 자물쇠도 파손되어 있었으며 보시금을 포함해 강도들이 사원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설명하며 “당시 사원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현재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범행 현장이 녹화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으나 범인은 감시 카메라 수신기와 하드 드라이브까지 훔쳐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왓 라오 사원은 보안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기금 모연을 시작했다. 라 스님은 “많은 분들이 피해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기금 모연을 열었다”면서 “내부 회의 끝에 보안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 한다. 기금은 모두 보안 카메라 수리 및 증설에 사용 할 예정이다. 우리 사원의 스님과 관계자 모두 안전하게 지내 수 있도록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 · 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2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2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동 참 금 : 259만원~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2024년 2월 25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18일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 · 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